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 공연분야

노원어린이극장 어린이·가족 공연예술축제 1th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 자료집 2022



노원어린이극장 어린이·가족 공연예술축제 1th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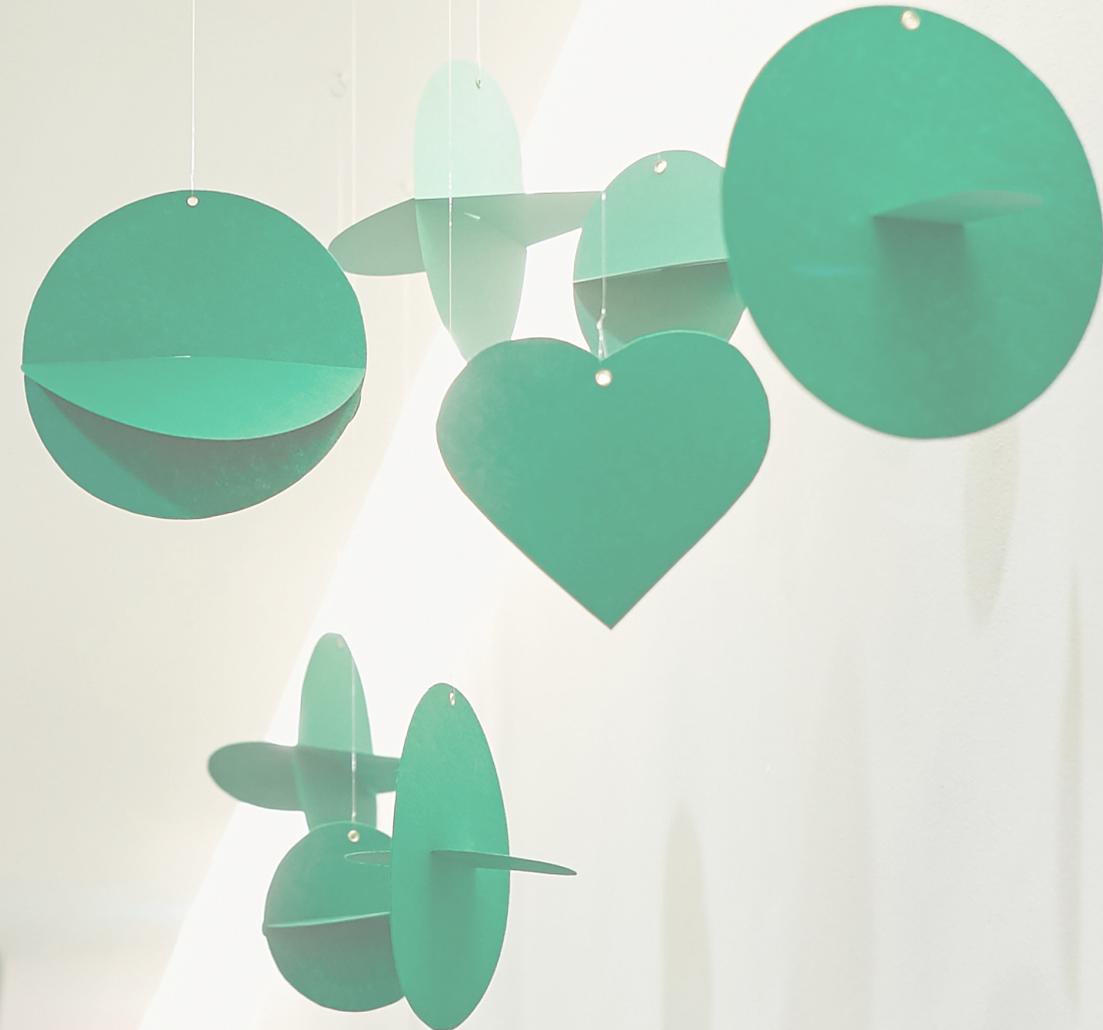
결과 자료집 2022

노원어린이극장

노원어린이극장은 2020년 10월 30일에 개관된 어린이전용 극장입니다.
유아·어린이·청소년·가족을 위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가족중심 극장입니다.



노원어린이극장
인스타그램



노원어린이극장 Nowon Children's Theatre

-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2 지하1층 노원어린이극장
- ▶ 개관일 : 2020년 10월 30일
- ▶ 시설현황
 - 규모 및 면적_ 객석수 : 204석 / 건축면적 : 1,471,02m² / 무대면적 : 177.95m²
 - 구성_ 운영사무실 / 안내데스크 / 커뮤니티 플레이존 / 계단 포토존 / 수유실
- ▶ 문의 : 02-2289-3451
- ▶ 홈페이지 : www.nowonarts.kr

MISSION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어린이극장

VISION

상상력,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이 성장하는 극장
주민이 가꾸고 보존하는 지역예술극장

MAIN TASK

- 가족이 함께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및 개발
- 노원어린이극장의 고유한 배경을 기반으로 예술로 재해석해 보는 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 지역주민과의 연대와 소통을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 지속 및 발굴



노원어린이극장

| 목차 |

01.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사업소개'	08
· 사업소개	08
· 기획의도 및 추진방향	09
· 운영체계 및 콘텐츠 구성	10
· 사업결과 및 추진실적	12
02.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16
· 동심연구소- 그림자극 <복두칠성>	16
· 극단 보물-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가족 극장 <노란우산>	18
· 독립예술가 오정은- 테이블인형극 <누가 더 빠르게?>	20
· 창작놀터 극단 야- 인형극 <빨간모자의 소풍>	22
· 극단 문- 종이컵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24
· 워터퍼펫트 푸프-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26
03.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회고록'	30
· 자문위원 좌담내용	30
· 9월호 아띠리뷰(글_이은경 연극평론가)	40
· 9월호 한국연극리뷰(글_황승경 연극평론가)	50
· 지역사회 공연장의 역할과 기능(글_김병호 예술감독)	58
· 예술적 실천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글_김보영 담당자)	60
04.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만든이 소개'	64
05.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현장 스케치'	74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자료집

01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사업소개’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사업소개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는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주최·주관하는 **어린이·가족 공연예술축제**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본 축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지원사업 ‘2022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Slogan •

“가족극장을 위한 작은 무대 위의 판타지”

• Concept / Thema •

Unlearning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학적** 삶의 태도를 경험

Fantasy

판타지를 통한 세상을 경험

Peeling

공연예술을 통한 **비움**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기획의도 및 추진방향

기획의도

- 정형화된 관람형 공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담아내는 작품들**로 가족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기획
- 관객과 소통하는 **창의적·미학적 예술놀이터**로서의 역할과 기능
- **기성세대의 다양한 경험이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감의 장

추진방향 특징 및 차별성

- **공간의 확장**을 통한 차별성을 가진 축제
- **소박하고 단순화**(축제의 요란스러움, 화려함을 연상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예술축제로서 예술놀이터라는 환경을 조성
- 공간 곳곳이 **예술적, 미학적 관점**으로 설계
- 공간의 다변화,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의 힘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운영체계 및 콘텐츠 구성

예술감독체제의 극장 운영 실무진

자원봉사자 반달 주민네트워크 구축



전문 예술분야 동료와의 협업

예술축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술적 소통을 통한 의사전달체계

시민사회와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예술적 경험이 작용하는 삶(the work of Art)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운영체계 및 콘텐츠 구성

| 콘텐츠 구성 |

노원어린이극장 곳곳을 누비며 투어의 형태로 공연관람



< 무대 >



< 객석 >



< 로비 1 >



< 광장 >



< 로비 2 >

노원문화재단 노원어린이극장 공연예술놀이터

오리타 > 타트

가족극장

Immersive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대본을 이용한 문장스티커를 통해 나만의 인형 극장 엽서 북 만들기



엽서북 (170*107mm)*160매



패브릭 방석 (350*350)mm



스티커 (107*170)mm



피우치 (200*220)mm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사업결과 및 추진실적

| 사업결과 |

- ▶ **공모사업명**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 ▶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2 노원KT지하1층)
- ▶ **공연일정**
2022년 8월 12일 ~ 14일 / 11:00 ~ 16:00
- ▶ **사업내용**
노원어린이극장 전체를 이동하며 관람하는 이머시브 시어터 형태로 극장 곳곳에서 4편의 공연을 선택관람. 그림자극<북두칠성>, 인형극<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누가 더 빠르게?>, <빨간모자의 소풍>, 작은 인형극 <노란우산>,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공연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 일정표

시간	내용	장소
11:00~11:30	· 그림자극 <북두칠성>, 극단 즐거운사람들	무대위에 세워진 돔
11:40~11:50		
11:50~12:00	· 아주작은 인형극 <노란우산>, 극단 보물	로비에 우뚝 선 아주작은 집
12:00~12:10		
12:20~13:00	·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극단 워터퍼펫트	어린이극장 1층광장
13:10~13:40	· 1인 인형극 <누가 더 빠르게?>, 독립예술가 오정은(8.12.~8.13.) · 인형극 <빨간모자의 소풍>, 극단 야(8.14.)	로비에 펼쳐진 알록달록 카펫 위
13:50~14:00		
14:00~14:10	· 아주작은 인형극 <노란우산>, 극단 보물	로비에 우뚝 선 아주작은 집
14:10~14:20		
14:20~15:00	· 종이컵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온다>, 극단 문	객석 위 간이무대
15:10~15:50	·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극단 워터퍼펫트	어린이극장 1층광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사업결과 및 추진실적

| 추진실적 |

- ▶ **관람료**
전석 2만원
- ▶ **관람내역**

회차	유 료	무 료	계
1	42	50	92
2	50	50	100
3	50	50	100
총 3 회	142	150	292

(단위 : 명)

※ 어린이극장 1층 광장에서 진행한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만 무료 관람 진행.

▶ 홍보성과

연번	신문기사 (온·오프라인)	기사 제목	날짜	기사유형
1	노원신문	·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개최 ·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	07.27.	심층
2	문화뉴스	· 노원어린이극장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 ·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개최 ·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상과 공감의 시간, 여름 공연예술 놀이터	08.02.	심층

연번	잡지를 포함한 기타매체	기사 제목	날짜	기사유형
1	노원아띠 8월호	· 어른도, 어린이도 공연장으로 문화 피서를 떠나요!	8월호	프리뷰
2	9월호 월간지 한국연극	· 작은 무대 위의 판타지 향연 ·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9월호	심층리뷰
3	노원아띠 9월호	· 다양성과 지역성을 추구한 어린이극축제	9월호	심층리뷰

▶ 현장 스케치 영상 바로보기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자료집

02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동심연구소' 그림자극 <복두칠성>

초 연	2022	동심연구소는 인디 무크지 '동심'과 동시집을 출간하는 동인들이 이끄는 동심 놀이터입니다. wecand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인문학토크 '첫사랑콘서트', '명랑콘서트', '동시동화아카데미' 활동 등 다양한 동심놀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심연구소는 시인, 동화구연가, 아나운서, 작곡가, 성악가, 연출가, 평론가, 작가, 낭송가,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 르	그림자놀이극		
제 작 진	구 성 연 출		김병호
	극 본		서 빈
	작 곡		이용규
	영상디자인		강노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E-mail	kimbhoo@daum.net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마음속 빛을 찾아가는 꿈과 모험의 여정

이야기꾼, 놀이꾼으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두지 않고 관객과 함께 교감하는 이야기꾼들의 그림자 놀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빛과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림자극과 영상으로 그리고, 노래와 놀이로 이어갑니다. 빛도 어둠도 모두 조화롭게 존재하며 함께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을 생각하고, 함께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사소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자극 <복두칠성>은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에서 시작해 조금씩 빛이 생기는 과정을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주인공 빛나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빛이 사라졌어요. 큰일입니다.
빛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어부들의 길동무 복두칠성도 안 보입니다.
주인공 빛나는 어부인 아빠가 걱정이예요.
빛나는 아빠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빛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합니다.
몰랐던 사실도 깨닫습니다.
빛나는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극단 보물'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가족 극장 <노란우산>

초 연	2012	극단 보물은 마리오네트를 전문으로 공연을 제작해온 가족 극단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연을 보았던 관객이 그 감동을 자신의 자녀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다시 보여주고 싶어하는 작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각 인형들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통해 감동을 넘어선 충격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어깨춤을 추거나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인형들의 사실적인 표현과 재주에 빠져들 것입니다. 대표작인 <목각인형 콘서트>, <노란 우산>, <어느 한 아버지>, <사랑이 있는곳에> 등 극단 보물의 공연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국내외 우수 축제에 초청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 르	마리오네트 인형극		
제 작 진	원 작		류재수
	연 출		김종구
	기 획		송옥연
	작 곡	신동일	
연 주	한봉예		
출 연	김해일, 이슬기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10분		
E-mail	keilli@naver.com		
작품 만나보기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 가족 극장

한 가족 극장은, 한 가족만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연장입니다. 한 뼘도 채 안 되는 자그마한 인형들이 우산을 들고 비 오는 날의 학교 가는 길을 앙증맞게 보여줍니다. 걸리버 여행의 동화 나라에 초대 된 것 처럼,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가족 극장 <노란우산>은 그림책 《노란우산》을 보는 순간, 학교 가는 즐거움의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어깨와 무릎을 서로 맞대고 앉을 수 있는, 단, 한 가족만이 오붓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극장을 생각해 냈습니다. 인형 또한 온 가족이 무대를 향해 고개를 바짝 내밀고 볼 수 있도록 손가락만하게 아주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족 모두는 하나가 되어, 눈앞에서 무엇이 펼쳐지는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7분 남짓한 공연을 통해, 한 가족만을 위한 사랑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우산을 쓴 아이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빗길에 자박자박, 놀이터와 길거리 등을 지나 학교로 나란히 나란히 걸어갑니다. 우산을 받쳐 들고 학교 가는, 인형극에서 아이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엄마와 아빠에게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한 자락을 떠올리는 추억입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독립예술가 오정은' 테이블 인형극 <누가 더 빠르게?>

초 연	2016	오정은 배우는 극작,연출,무대제작,연기 등 작품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완성하여 공연하는 독립공연예술가입니다. 프랑스 Ecole International de Theatre JACQUE LECOQC에서 배우수업을, Theatre aux mains nues에서 인형 및 무대제작 오정은
장 르	테이블 인형극	
제 작 진	극작, 연출, 배우 오정은 인형 및 무대제작 오정은	2013년 국립극단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축제에서 <봄날은 간다>작품이 공식참가작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극에 대한 꿈과 '찾아가는 작은극장'의 비전을 품고 새롭게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람연령	전연령	2014년 1인극 배우들과 함께 독립공연예술가네트워크를 창단하였으며, 2016까지 대표작을 맡아 독립공연예술가들의 역량강화와 '찾아가는 작은극장'을 통해 삶 속에서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생태계를 만들고자 힘썼습니다.
공연시간	45분	작품으로는 <봄날은 간다> <달달 무슨 달> <여행...가방속에서 꺼낸 기억> <누가 더 빠르게?> <아주작은극장_너에게 편지를 쓴다> <백스테이지프로젝트_502번지 유명대소동>이 있습니다.
E-mail	blmoh@naver.com	
작품 만나보기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토끼와 거북이의 좌충우돌 행복찾기 프로젝트!

테이블 인형극 <누가 더 빠르게>는 모두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남을 이기고 1등을 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함께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극장을 펼치는 이동형 무대로 삶의 현장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연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통 소쿠리를 이용한 친근한 무대장치와 바구니 속 반전 넘치는 인형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관객들이 직접 천을 이용해 산과 호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인형들과 함께 즐기는 관객 참여형 공연입니다.



달리기에 1등 하는 게 소원인 토끼와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좋은 거북이가 만났다.

달리기에 한 번도 1등을 못 해 본 토끼 '꼬맹이'는 옆집에 이사 온 거북이를 보자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거북이에게 같이 놀자고 재촉하여 달리기 경주에서 기어이 1등을 하는 토끼 '꼬맹이!'

그러고는 거북에게 "느림보 꼴등"이라고 놀려대며 가버린다.

토끼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북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떻게든 꼬맹이를 이길 계획을 세운다.

과연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빠르게 달려서 1등을 할까요?

1등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남을 이기고 1등을 해야만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좌충우돌 행복찾기 프로젝트!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창작놀터극단야' 인형극 <빨간모자의 소풍>

초 연	2013	창작놀터 극단 야는 2008년 '작은아이가 큰 어른처럼 큰 어른이 작은아이처럼'이라는 모토 아래 창단되어져 연극의 소통, 신체와 오브제의 활용을 주제로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꾸준한 창작 실험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문화로 행복해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장 르	인형극	
제 작 진	김수진 박재춘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20분	
E-mail	play1ya@naver.com	
작품 만나보기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뒤죽박죽 인형극장!

인형극 <빨간모자의 소풍>은 동화 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늑대, 마녀, 계모, 호랑이 등은 항상 나쁘고 무서운 성격으로 묘사되는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향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창작놀터 극단야의 '뒤죽박죽 인형극장'에서는 캐릭터들의 입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새롭게 만들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의 연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마음을 가져보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아름다운 사회성을 키우고자 하는 바람에서 창작 된 작품입니다.



햇살 가득한 따사로운 아침, 빨간모자는 소풍준비에 분주하다.
콧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가는 빨간모자의 뒤를 살금살금 쫓은 늑대!
들판에 도착한 빨간모자의 눈에는 늑대가 보이지 않고 예쁜 꽃, 팔랑팔랑 나비만 보인다.
빨간모자는 오늘 즐거운 소풍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극단 문(門)' 종이컵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초연	재연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한 사람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스탕달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장르	종이컵 인형극	
제작진	박영희 유한수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E-mail	theatre_mun@naver.com	무대 위의 예술. 연극. 그날의 연극은 그날이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관객의 기억 속으로 사라질 뿐이죠.
작품 만나보기		극단 문(門)은 무대 위 어느 한 순간을 기억해주는 '관객'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무대 예술단체이며 교육단체입니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작은 종이컵 속, 커다란 상상의 세계 종이컵 인형극!

종이컵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2007년 볼로냐어린이 국제 어린이 도서전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으로 한국적 모티브로 세계인이 즐기는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 박연철 작가의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컵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고 있는 극단 문(門) 박영희의 <제랄다와거인>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쉽게 쓰고 버리는 작은 종이컵으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어 평단과 관객의 주목과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를 압도하는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특별한 형식의 아날로그적 무대공연을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공연입니다.



엄마가 그랬다.....
망태할아버지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잡아다가 혼을 내준다고.
밤늦도록 안자는 아이들은 올빼미로 만들어버리고, (무서워!)
떼쓰는 아이들은 새장 속에 가두고, (갑소사!)
우는 아이들은 입을 껴매버린다고.. (세상에나!)
으... 엄마 미워! 망태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
그런데..... 망태할아버지가 엄마를 잡아갔다.
과연 잡혀간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워터퍼펙트 푸프'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장르	수중인형극	
제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 Phan Thanh Liem, Duong Van Pho, Dang Van Ben, Phan Van Canh, Pham Van Phong, Tran Luu Ton 국제담당 최승연 무대감독 이병술 프로듀서 김병호 	<p><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 가로 6m * 세로 4m 물탱크 깊이: 60cm / 물 소요량: 14m³ 세트: 대나무 발(가림막) 3개, 철 파이프, 고무지붕, 프로젝트 스크린 검은막 2개, 철 페달, 방수용 캔버스, 케이블 등 소품: 목각인형(용, 유니콘, 들소, 사람 등) 50개 셋업시간: 7시간 <p><음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원 USB사용, 스피커 및 전원, 모니터 1세트, 믹서 16라인, CD 1대, MD 1대, mic 1대, mic 스탠드 1대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E-mail	happy1dream@hanmail.net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공연 및 극단소개

한·베수교 30주년 기념의 교류작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은 베트남의 오랜 전통공연예술입니다. 1121년 리 왕조 때 하남주 주이 띠엔 지방에서 처음으로 왕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시작된 공연입니다. 이후 베트남 농부에 의해 오랜 세월 전해 내려와 베트남 농부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작품으로 점차 발전되어 왔습니다. 수중인형극은 물 속에서 인형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특유의 고유 기술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로지르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물의 파장이 조명과 전통음악과 어우러져 오리엔탈리즘의 환상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15막 단막 형식으로 베트남의 민화와 설화 속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여 베트남의 전통과 문화, 생활양식을 공연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음악과 함께 전통 깃발의 등장
2. 츠테우 등장
3. 용의 춤: 불과 물을 내뿜는 용
4. 요정들의 춤
5. 개구리잡기
6. 불사조의 춤
7. 음악밴드
8. 들소 싸움
9. 피리 부는 들소 소년
10. 농사일
11. 용의 춤
12. 배 경주
13. 오리를 훔치는 여우들
14. 낚시
15. 피날레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자료집

03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회고록’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노원 어린이극장의 현재 운영 방향에 대한 검진 |

-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6:00
- 장 소 : 노원 어린이극장
- 참석자 : 김병호(예술감독),
우인기(수원화성문화재단총감독),
이은경(연극평론가), 황승경(예술교육감독)

김병호 예술감독 : 노원 어린이극장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관한 지 2년 됐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작년은 객석의 절반 50% 정도만 오픈했어요. 올 6월부터 100% 객석 오픈을 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매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축제 기획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미뤄지고 있다가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공연장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에 최종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따 둘러 보시겠지만 올해는 외부 광장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도 함께 진행하여 실내외 모두 활용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티켓오픈 하자마자 하루 만에 전부 매진되고 있습니다.

황승경 선생님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이 극장에서도 했었고,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 예술교육감독으로서의 시각으로 봐 주십시오.

이은경 평론가님은 지역 문화에 대해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관점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과는 다르게 지역극장이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축제가 안착이 되고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축제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모셨습니다.

우인기 감독님은 수원화성축제 감독님이시지만 실제 노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예술가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 축제전문가로서 담아내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모르지만 운영은 다를 것이 없으니 기술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원 어린이극장 페스티벌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 |

우인기 감독 : 현재 극단들이 갖고 있는 작품들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병호 예술감독 : 그렇습니다.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노원구 지역예술가(독립예술가) 오정은 연출님의 작품 '누가 더 빠르게?' 공연이 어린이극장 로비의 포토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 우산'은 운영사무실 앞쪽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인형의 집처럼 작은 극장이 설치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 관람 최대 인원은 4명의 가족이 관람 가능한 규모입니다. 메인 극장무대에서는 그림자극 '북두칠성' 공연이 펼쳐지고, 극장 객석 하단 부분에서는 종이컵 인형극인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베수교 30주년으로 베트남 수중인형극을 야외 광장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인기 감독 : 베트남에서 직접 오시는 건가요?

김병호 예술감독 : 네, 직접 오십니다. 3일 연속, 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시차로 진행됩니다. 관객이 2만원에 티켓을 구매하여 공연을 선택관람하는 것이 있고 무료관람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은경 평론가 : 손이 제법 많이 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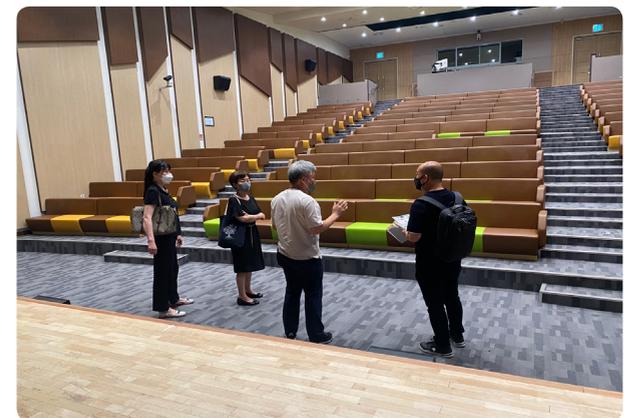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김병호 예술감독** : 개관 후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연을 관람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가족공연축제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우인기 감독** : 자체 기획 또는 자체 제작 공연이 지역공연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병호 예술감독** : 자체 제작 프로그램? 실은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 우인기 감독** : 보도자료 같은 것도 명분 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주고 부르면 다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과는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병호 예술감독** : 지역의 단체나 지역의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그렇게.
- 우인기 감독** : 예산 안에서 진행한다는 게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지역에서 활성화가 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은경 평론가** :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번 축제에는 함께 하고는 계시네요. 이번 축제는 형식적인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공연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야외에서도 공연되는 다양성이 포커싱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작품을 단순히 올리는 느낌이 드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 황승경 감독** :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으니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에서 했던 작품을 선별하여 한 공간에서 많은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들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 마당 같은 것으로 기획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휴가철이니까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김병호 예술감독** : 6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한 공간마다 각각 참여합니다. 키다리아저씨도 있고, 빨간 코 아저씨도 있고.....
- 이은경 평론가** : 볼거리와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드신다는 거죠?
- 김병호 예술감독** : 네, 그 예술가들이 50명 소수의 관객에게 공간을 안내합니다. 6명의 예술가 본인의 공간에 들어오는 관객들을 케어합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따라가면서 안내받고 대접받는 느낌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비인 공간이 극장으로 변모해야 하므로 설치 미술가들이 컨셉에 맞게 연출을 해줄 계획입니다. 작품의 결에 맞추어 환경이 조성됩니다. 우 감독님의 말씀 처럼 지역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극장에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주민과 융화되어 공연예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지역예술가들과 장기 워크숍을 진행하여 삼박자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노원어린이극장의 운영 방향에 대한 보완점, 기대효과 |

김병호 예술감독 : 내년, 하반기에는 예술교육과 접목된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상·하반기 공연예술을 매개로 하는 것 하나. 예술교육과 접목된 것 하나. 이은경 평론가님이 강조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강조한 축제 말입니다. 기획공연은 물론 3년 차를 넘어 5년 차가 되면 상설극장으로 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인기 감독 : 어린이 상설이 되면 지역 최초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호 예술감독 : 그렇죠. 옛날 샘터 파랑새극장이 처음 있었고, 수요가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원장님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은경 평론가 : 노원에도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김병호 예술감독 : 노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성북, 도봉, 의정부, 별내, 남양주 등 연령대 낮은 부부들의 가정집이 많습니다.

우인기 감독 : 남양주, 의정부까지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김병호 예술감독 : 그렇죠. 30~40분 정도 안에 올 수 있으니까요.

황승경 감독 : 지하철 연결도 잘 되어 있고요.

김병호 예술감독 : 오늘은 전체적 설명을 들으시면서 상황을 봐 주시고, 외부 공간을 한 번 둘러보시며 축제 현장 당일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문의 의미는 축제뿐만 아니라 향후 노원어린이극장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큐레이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이은경 평론가 : 평가를 겸한 컨설팅을 해 주십사 하시는 거죠?

김병호 예술감독 : 그런 거죠. 3년 정도는 해 봐야 해요. 대학로에서도 여름 축제, 겨울 축제를 한 10년을 했지만 아시테지 축제하고는 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 관점에서 보시고, 실제 관객들 반응이라든지 운영과정까지 한 번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작품은 하루에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못 오시는 요일을 제외하시곤 보신 후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인기 감독 : 현장을 보고 고쳐야 할 것이나 보강해야 할 부분을 많이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김병호 예술감독 : 실제 이 건물이 KT 소유주인데 기부 채납을 통해 구청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작품이나 배치하는 것도 매우 엄격해요. 민원이 될 만한 소지도 검토하며 조율해야 하고,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의 것들이 많아요.

황승경 감독 : KT의 입장도 살펴서 'KT가 도와주는 OO'문구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우인기 감독 : 예를 들어 KT와 함께 하는 OO 이런.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김병호 예술감독 :** 예매된 관객의 수는 많지는 않고, 또 티켓이 바로 매진되기도 했어요.
- 우인기 감독 :** 몰랐던 분들의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예산만 더 된다면 소외지역 같은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친구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나 더 접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김병호 예술감독 :** 80석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를 초청해서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 우인기 감독 :** 이곳은 장애우들도 오나요? 제가 알기로 노원이 탈북민도 많고, 배려차원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는 골고루 이것저것 안배를 하려고 했네! 라고만 해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보강하고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소외지역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이은경 평론가 :** 가성비 좋은 축제인 것 같기는 해요.
- 황승경 감독 :** 한 번 오면 여러 장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 김병호 예술감독 :** 저는 의도적으로 추진하는게 뭐냐면 티켓을 오픈하면 짹 빠지는 데 일요일 11시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토요일 11시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덜 빠지는 회차를 가지고 이벤트를 합니다. 표를 제가 50석 티켓팅을 하면 50% 할인이 되니 산 다음에 제가 가진 커뮤니티를 동원 합니다. 시니어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극이 아이들만 보는 것인 줄 알았더니 왜 보라고 했는지 알겠다고 말씀 하십니다. 만원이면 부담이 없어요. 생산적으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거죠. 50대 60대가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통해요. 앞으로 자리가 잡히면 이분들이 극장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생길것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극장을 안내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도하면 충분히 가능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 우인기 감독 :** 이 공연들 장소가 정해진 것이죠? 날씨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 극은 야외인데 괜찮을까요?
- 김병호 예술감독 :** 수중인형극인데 우산을 쓰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인기 감독 :** 해가 너무 많이 내리쬐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이다 보니. 그늘막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김병호 예술감독 :** 그늘막이 위에 설치가 됩니다.
- 우인기 감독 :** 큰 문제 없이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야외행사는 날씨로 인해 한 번에 예산이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기본적인 대비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겠네요. 50명이면 50명으로 딱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자문위원 좌담내용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 다양성과 지역성을 추구한 어린이극축제 -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

*본 원고는 노원문화재단의 웹진 [노원아띠 9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이은경(연극평론가) zungbu@hanmail.net

어린이극의 메카를 지향하는 노원어린이극장이 소박하지만 알찬 아동극축제 ‘와따가따 가족극장-공연예술놀이터’(2022.08.12.~14.)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축제는 ‘작은 무대 위의 판타지’를 슬로건으로 6편의 초청작을 공연하고, 극장 안팎에서 광대 저글링, 장대인간 버스킹, 마임이스트 풍선놀이 등의 부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예약관객 모두에게는 별레퇴치용 팔목밴드와 놀이키트가 제공되었는데, 관객의 니즈를 반영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특히 키트 속에는 직접 인형극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책과 작은 패브릭 돗자리가 들어있어 휴식 시간에도 지루할 새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축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과 지역성이다. 소규모의 그림자극, 인형극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 특히 인형극은 수중인형극, 종이컵인형극, 마리오넷인형극 등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었다. 작은 무대를 표방한 축제답게 1인극의 비중도 높았다. 그리고 지역민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지역 연계 축제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시테지국제여름축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어린이극축제가 주로 국제성을 지향한다면 이 축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과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또한 극장 전체를 이동하며 관람하도록 동선을 구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개막작인 <복두칠성>은 극장 무대 위 대형 돔,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극장 무대 아래, <누가 더 빠르게?>와 <빨간 모자의 소풍>은 극장 로비, <노란우산>은 로비 한쪽에 세워진 작은 인형극장, <조이느옥>은 극장 밖 대로변에서 공연되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 안팎을 이동하는 관객은 극장의 공간성을 새로운 감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일상공간도 얼마든지 극적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비관습적 공간체험은 관객의 극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이 글에서는 필자가 관극하지 못한 <빨간모자의 소풍>과 자주 공연되어 많이 알려진 베트남 전통 수중인형극 <조이느옥>을 제외한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다양성과 지역성이란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출발한 이 축제가 지역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 어린이극의 발전을 견인하는 풍성한 축제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라진 빛을 찾기 위한 모험의 여정이 대형돔에서 펼쳐지다 : 극단 즐거운사람들 <복두칠성>



극단 즐거운사람들의 <복두칠성>은 그림자극에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 영상이미지를 더해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그림자 음악극이다. 복두칠성을 소재로 가족, 환경,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환기시키는 가족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연이 극장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에어 돔 안에서 진행되어 관객에게 낯선 감각을 제공한다.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환상세계로 들어가는 의식처럼 낮은 포복으로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관객의 상상력은 확장되기 시작한다. 돔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은 천장을 가득 채운 별들의 영상이다. 바다에 앉은 관객들은 시선을 들어 밤하늘의 별자리로 가득한 우주의 풍경을 보면서 제목인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된다. 돛 중앙에는 그림자극을 위한 직사각형의 스크린 무대가 있고, 좌우에는 바다 위의 등대, 산 위에 놓인 천체망원경, 불 켜진 마을의 모습을 담은 소형 조형물이 놓여있다. 극장의 관객석 대부분이 무대보다 위에 위치하기에 주로 무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한데, 이 공연은 관객은 앉고, 배우들은 가까이 서서 연기하기에 당연히 시선을 위로 두게 된다.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니 공연을 감각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느껴진다.

공연은 관객의 상상력을 열어주는 사전 놀이로 시작되는데, ‘작은별’, ‘우산’, ‘기차길옆’, ‘고기잡이’ 등의 동요가 이어지는 동안 배우들은 커다란 색종이로 별, 우산, 기차, 배, 비행기 등을 만드는 종이접기 퍼포먼스를 한다. 새롭지는 않지만 돛이란 공간과 극적 오브제들, 음악과 놀이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자연스럽게 관객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중심서사는 하늘의 달과 별이 사라져 어둠 속에 갇혀버린 마을의 소녀 빛나가 가족과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담이다. 우리의 바리데기설화를 떠오르게 하는데, 희생제의의 역할을 어린이 아닌 어린이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으며, 자신에게 귀한 것을 타인과 나눌 줄 아는 것이 마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한경쟁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동시대의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음악적 역량이 뛰어나 음악 넘버들이 귀에 잘 들어왔고, 그림자극에서는 정교한 인형의 움직임이 돋보였으며, 변화하는 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힘은 익숙한 체험방식에서 벗어났기에 새로운 감각을 열어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일침을 날리다:
극단 문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극단 문의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박원철 작가의 동명의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종이컵 인형극이다. 주인공 민재를 통해 어린이의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바라본다. 공포심을 자극하여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강요하는 어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은 어린이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어른에게는 자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교육적이다. 기성세대 역시 어릴 때 망태할아버지의 위협을 경험했으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어린 세대에게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포영화 같은 마지막 반전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종이컵이 이렇게 생생한 상상력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함으로써 환경문제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망태 할아버지는 필자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상상 속 존재인데, 요즘 어린이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세대교감이 가능한 소재를 발굴한 것도 긍정적이다.

작은 테이블 위가 무대이다. 정말로 작은 무대에 종이로 만든 극적 공간, 소품으로 쓰일 종이컵들이 놓여있고, 무대 좌우를 잇는 줄이 걸려있다. 그리고 2개의 작은 조명등이 무대 양쪽에 서 있다. 매우 작고, 소박한 무대이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현실과 환상을 넘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나들며 확장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작품에서 돋보이는 것은 1인 퍼포머인 박영희 배우의 뛰어난 역량이다. 이야기를 설명하는 화자이고, 인형조정자이자 배우, 음악 연주자, 조명과 음향 스태프 등 1인 다역을 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체형 공연을 보여준다. 특히 관객과의 교감 능력과 순발력이 뛰어나서 관객의 호흡을 쥐락펴락하며 몰입하게 한다.

원작이 2007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작품답게 종이컵에 그려진 인물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감정에 따른 인물의 다양한 표정 변화를 재빠르게 보여주고,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인형임에도 입체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민재가 엄마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엄마의 모습이 갑자기 커지고, 망태할아버지에게 잡혀간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은 정말 생생하다. 특히 줄에 나란히 걸린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아동극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고전의 재해석으로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극단 희망 <누가 더 빠르게?>



독립예술가 오정은 배우의 <누가 더 빠르게?>는 잘 알려진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창작한 인형극으로, 오정은 배우가 해설자이자 인형조정 및 연기를 아우르는 1인극이다. 토끼 꼬맹이는 이름처럼 작은 신체로 달리기에서 항상 꼴찌를 해 놀림을 당하고 있다. 어느 날 옆집에 느림보 거북이인 북이가 이사를 오자 꼴찌에서 탈출할 방법을 모색한다. 함께 놀자고 북이를 부추겨 달리기 경주를 하고, 경기에서 이기자 북이를 놀리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설움을 털어낸다. 기분이 상한 북이가 꼬맹이에게 재경기를 요청하여 이번에는 우화의 내용처럼 이긴다. 그러자 화가 난 꼬맹이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친구가 되고 싶었던 북이는 꼬맹이가 좋아하는 당근을 매일 집 앞에 놓아두며 나오기를 기다린다. 북이의 진심을 알게 된 꼬맹이는 1등만 꿈꾸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가 된 이들은 산에서는 뒷다리가 긴 꼬맹이가 북이를 업어서 달리고, 호수를 지날 때는 북이가 단단한 등에 꼬맹이를 태워 헤엄친다. 산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꼬맹이와 물에서 천하무적인 북이의 협업으로 이들은 다양한 모험을 함께 하게 된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이 작품은 성공의 이데올로기에 맞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돕고 나누는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왜소한 토끼와 느림보 거북이처럼 한계를 가진 인물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결말이 인상적이다.

무대는 작은 테이블 위에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 소쿠리를 쌓고, 초록 계열의 염색으로 자연이란 극적 공간성을 입힌다. 일상 소품이 무대가 되고, 개량 한복을 입은 연희자의 구수한 사투리 연기와 고전 우화가 어우러져 왓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처럼 향수를 자극한다. 공연 중 분리된 천을 움직여 산과 호수를 연출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주체로 관객을 참여케 한다. 소극적인 관극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장면이기에 어린 관객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극장 로비인 열린 공간에서 공연되고, 관객참여 장면이 있기에 해프닝과도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능숙하게 정리하며 공연의 흐름을 이어가는 배우의 순발력은 오랜 공력을 느끼게 했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소수관객만을 위한 작은 극장에서 일상의 풍경을 만나다
극단 보물 <노란우산>



류재수 작가의 동화가 원작인 <노란우산>은 비 내리는 등굣길, 우비에 우산을 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서 학교로 가는 일상 풍경을 그린 마리오넷 인형극이다. 최대 관객 4명 정도인 집 모양의 작은 극장에서 소수 관객만을 위한 공연이 진행된다. 예약한 시간에 극장 앞에 대기하면 극단 관계자가 마리오넷 인형극이 무엇인지 기본 정보를 설명한다. 그리고 거의 기듯이 몸을 움직여 극장에 들어가 앉으면 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새로운 감각의 축수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3인 이상의 예매자만 관람이 가능하게 제한했기에 대부분 가족 단위의 관객이 관람했지만 낯선 관객일 지라도 무릎이 닿을 정도의 좁은 공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형성된다. 극장 밖과 확실하게 분리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기분 좋은 긴장감을 조성한다. 정말 작은 무대의 막이 열리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마리오넷 인형이 등장한다. 빨간 장화에 노란 우산과 우비 차림의 인형은 조종줄의 움직임에 따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종이로 만든 집과 가게들을 지나는 동안 다양한 차림새의 인형들이 등장하여 함께 걷는다. 가로수 길을 지나서 횡단보도와 다리를 건너면 놀이터인데, 이들은 잠시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노원아띠 리뷰 (글_이은경)

다가 황급히 걸음을 옮긴다. 그들 모두가 향하는 곳은 바로 학교다.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로 흩어지면 우산꽃이에 꽃힌 각양각색의 우산들만 남는다.

초등학교 주변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지만 소형 인형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은 낯설면서도 감각적이다. 종이로 만든 집과 건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인형들마다의 차림새나 소품이 얼마나 다르면서도 사실적인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음악과 함께 인형들이 리듬감 있게 걷는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관객 각각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하여 10분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여운은 훨씬 길었다. <걸리버여행기>의 소인극에 온 걸리버처럼 익숙한 일상풍경을 작은 무대를 통해 낯설지만 새로운 풍경으로 감각하게 된 것이 인상적이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 작은 무대 위의 판타지 향연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

*본 원고는 [9월호 한국연극 리뷰]에 실린 원고입니다.

황승경(연극평론가) lunapiena7@naver.com

코로나로 많은 어린이청소년대상 예술축제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된 지도 어언 3회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어린이 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목마름 때문에 지차체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규모 형태의 페스티벌을 마련하는 추세다. 2020년 개관한 노원어린이극장은 지역민을 위한 <와따가따 가족극장>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예술은 그 순간에 성쇠가 결정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린 시절 접한 예술적 이미지는 쉽사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원어린이극장은 ‘작은 무대 위의 판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상을 미학적인 태도로 바라보기’, ‘환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기’, ‘공연예술을 통해 비우기’라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기간 3일동안 오전 11시부터 매 시간마다 이머시브 시어터 형태로 그림자극 <복두칠성>과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누가 더 빠르게?>, <빨간모자의 소풍>, 작은 인형극 <노란 우산>,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등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다. 마치 보물찾기놀이를 하듯 다채로운 공연을 선택해 찾아다니는 관객은 오밀조밀한 극장의 구석구석을 이동하는 재미와 흥미를 맛볼 수 있었다. 원래는 무대가 아니었던 공간이 작은 무대로 새롭게 변모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예술을 색다르게 즐기는 경험을 선사했다. 중간 중간 사이에 관객들은 제공된 키트로 직접 인형극 속의 인형캐릭터를 만들어보고 그림책을 만들며 일상 속의 상상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빛과 그림자로 전방위적 판타지구현
-그림자극 <복두칠성>-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림자놀이는 가장 오래된 놀이 형식중 하나다. 종이도 아니더라도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 자연에서 오브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도 요원치 않으면 손바닥과 손가락을 변형해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캐릭터를 창조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한줄기 빛으로 구현한 무한한 상상세계를 통해 인간은 미래를 구상하고 이상을 꿈꾸어 왔다. <복두칠성>은 암흑 속에서 실제로 투사되는 빛을 통해 어린이관객에게는 마음의 빛이 가지는 본질을, 성인관객에게는 잊어버렸던 동심의 빛을 전달해 인생을 그리게 만드는 서사적 힘을 가진다. 그림자극에서 빛은 단순한 무대 효과가 아니라 또 다른 서사텍스트다. 빛의 농도, 색의 채도, 오브제의 밀도로 투과되는 그림자 실루엣언어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또 다른 상상의 세계를 구현해낼 수 있다.

<복두칠성>을 관람하는 관객은 평상시의 출입구가 아닌 무대 뒤편으로 출입해야한다. 그림자가 깊고 풍성해지려면 공간이 어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극장 무대에는 밀폐된 큰 돔이 형성되었다. 관객은 무대 하수에서 시작되는 구불구불한 미로터널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림자극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극장에 입장하면 극장 속의 극장이 된 그림자무대의 신비감은 더욱 발화되어 동화와 신화 속의 흑백세계로 관객을 인도한다. 무대공간은 단순한 정면에서 바라보는 액자형 사각공간에서 벗어나 수평과 수직으로 중첩을 오간다. 바닥, 천장, 벽까지 시선을 흡수해 관객은 끝없이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몰입된다. 축제의 예술감독이자 본 공연의 연출 김병호는 환상의 세계이지만 관객이 실제와 동떨어지지 않게 느끼도록 애니메이션 영상을 가미시켜 무채색 그림자에 색을 입혔다. 이로 인해 마치 물에 비친 물그림자같이 잔잔하지만 생생한 판타지가 구현된다.

막이 오르면, 어린이 관객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우조할 사전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 K.265’음악이 흐르고 4명의 놀이꾼은 별모양의 색도화지를 이용해 게, 천칭, 염소, 복두칠성 모양을 펼친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이들이 구사하는 무대 위 별자리는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천문과학관 돔 천장 별자리학습활동과는 상이하다. 반짝이는 별이 하나하나 모여 별자리가 되자 뭉쳤다 사라지는 별에서 직관적 감성을 느낀 어린이 관객은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여행한다. 무대에 펼쳐지는 별자리는 과거 목동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상상했던 별자리 서사 처럼, 이 놀이는 2022년 관객을 천진난만 동심의 원점에 돌려놓는다. 무대에는 어린이 관객에 잘 알려진 ‘우산’, ‘작은 별’, ‘기차길 옆’, ‘고기잡이’, ‘비행기’ 동요가 놀이와 어우러지며 본 공연이 시작된다.

본 공연은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다면?’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빛이 사라져 암흑으로 뒤덮인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영웅호걸일지라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직업이 ‘어부’인 주인공 빛나의 아버지는 바다 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길잡이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늘이 암흑이라 도통 돌아오는 길을 찾기 힘들다. 아버지가 귀향하지 않자 빛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벌써 현실에 안주해 빛이 없는 삶에 적응한다. 아버지 걱정엔 노심초사한 빛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현실과 맞닥뜨리기로 결심하고 빛을 찾아 떠나며 여정을 떠난다. 가는 길에 대장장이 아저씨와 다이아몬드 광산의 친구 하심, 천문학자를 만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나 비로소 빛과 어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서는 자리할 수 없는 자기쌍극자 관계지만 그렇다고 자석처럼 항상 밀어내는 관계도 아니다. 어둠이 짙어야 빛이 더 밝게 보여 그림자극은 더욱 선명하게 살아난다. <북두칠성>은 그림자를 생성하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통해 상생하는 주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공감각적으로 들려준다. 음과 양의 관계처럼 하나를 취하려 하나를 버리지 않으며 서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우주와 자연의 진리를 구현한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선율만으로 탄생되는 그윽한 서사
-작은 인형극 <노란우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극장에서 가장 짧은 공연이 펼쳐진다. 오로지 한 가족(아동 포함 3~4인)만 입장할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은 동화 속의 오두막을 연상하는 집 모양의 1평 남짓한 극장에 입장해 작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수수께끼 같은 공연을 감상한다. <노란우산>은 경쾌한 음악으로 알록달록한 우산을 멘 친구들이 부슬부슬 내리는 빗길을 거니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다. 원작은 2002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류재수의 동명 그림책이다. 그림책 <노란우산>은 글은 없고 그림과 음악만으로 비 내리는 날의 정경을 구성한다. 노란 우산을 든 아이가 장화를 신고 집을 나서면 어느새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차례차례 합세해 다리를 건너고 오솔길을 거닐다가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난다. 이윽고 한 무리의 우산들은 정돈되어 우산꽃이에 정리되면 극이 끝난다.

그림책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정교하게 이미지를 채색했다면, 작은 인형극은 우산을 든 마리오네트 인형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 오히려 비 오는 날 회색빛 아침의 서두름, 우산 위로 느껴지는 빗방울, 가끔씩 손등으로 밀려 떨어지는 빗물의 축축함이 더 생생하게 관객에 전달된다. 빗소리처럼 들리는 피아노선율에 맞추어 마치 아이들은 재잘재잘, 하하호호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만 같다. 대사나 시청각적 효과 없이 이미지만으로도 극의 서사는 상상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증폭된다. <노란우산>관객은 '비 오는 날'을 묘사한 평면적 공연으로는 공유하지 못했던 비나 우산과 연관된 각자가 지닌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무대의 마리오네트 인형들에게 고스란히 이입된다. <노란우산>이 전달하는 미학적 상상경험은 교조적 계몽이 아니라 아름다운 감성으로 마음의 평온을 주고 그늘진 내면의 정서를 어루만진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독특한 이국적 문화유산이 전하는 감각적 환상
-베트남 수중인형극 <조이느옥>-

‘조이느옥’은 베트남 수중인형극을 의미하는 베트남어로 이번공연은 한·베수교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특별 공연이다. 농경문화가 발달한 베트남은 4모작까지도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베트남 문화는 논농사와 불가분 관계였다. 1000년 전, 수확을 축하하는 마을 축제의 기념작으로 탄생한 수중인형극 <조이느옥>은 베트남 극예술을 대표하는 전통장르다. 배우들은 대나무커튼으로 가려진 막 뒤에서 긴 막대를 이용해 인형을 조정한다. 인형은 방수를 위해 옷칠을 한 목각으로 배우들의 정교하고 민첩한 손놀림으로 물살을 가로지르며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다. 노원어린이극장은 극장마당에 물결이 찰랑거리는 수중무대를 만들어 무더위를 이국적으로 식힐 수 있게 만들어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산역사인 <조이느옥>은 물의 파장과 전통음악을 이용해 풍년의 기원에서부터 베트남인들의 역사와 삶의 정서, 생활양식을 녹여낸다. 무대에는 거북이, 봉황, 용, 등의 상상 동물과 농업, 어업,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관객들은 독특한 이국적 문화유산의 감각적 환상을 경험한다.

예술적 잠재력이 세상을 뒤흔들 거창한 미학적 역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인 잠재력은 일상을 보다 유연하게 느끼고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예술적 마음가짐이다. 어린이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은 매우 중요한데, 관객의 전 생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이 마음가짐은 사변적인 인식만으로는 절대 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촘촘하게 짠 주입식 논리전개방식을 지양하고, 어딘가 허술한 빈틈이 있다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어린이공연예술축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로 개관 3년째이지만 매 공연마다 매진의 역사를 쓰고 있는 노원어린이극장이 성공적으로 기획한 제1회 어린이공연예술축제인 <와따가따 가족극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9월호 한국연극 리뷰 (글_황승경)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지역사회 공연장의 역할과 기능 (글_김병호)

“지역사회 공연장의 역할과 기능”

김병호(어린이극장 예술감독) kimbhoo@daum.net

지역사회에서 공연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일까요 고민합니다. 공연장은 공연만을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호기심 가득 눈여겨보고 깊게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과정의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 일상과는 조금 다른 태도로 관계의 이해를 높여가는 신성한 감성의 놀이터로 지역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은 개관 2년 차에 지역 전문극장으로서 차별화된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는 노원어린이극장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첫 번째 장으로서 매년 여름 시즌을 달궈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놀이는 관객들을 지원하는 봉사자와 예술가들이 일체감을 보여 주었고, 첫 경험이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5년, 10년, 100년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올해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공간의 확장에서 공연장을 품고 있는 KT건물 협조자를 설득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술놀이터를 총괄하는 감독으로서 공연장과 인접하고 있는 이웃 모두를 설득시켜 축제에 직간접 동참하도록 일궈내는 것이 이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온전한 축제로 성장해 가는 기반과 집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채워가고 풀어나가는 축제로 성장해 가도록 거듭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로써 양질의 공연이 가진 이야기의 힘을 통해 독창성과 다양성, 창의성, 수용성을 담아내 호혜와 상생으로 동반성장 하는 공진화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문공연장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공고히 하는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공감 놀이터. 기성세대가 가진 다양한 삶의 값진 경험의 사회적 자본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건강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세대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른은 아이의 본이 됩니다. 성장기의 미래세대는 스폰지 처럼 무엇이든 거르지 않고 흡수합니다. 3대가 함께 잘 섞이는 문화, 건강한 문화 소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노원어린이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지역사회 공연장의 역할과 기능 (글_김병호)

이극장은 반드시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공연을 관람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작이며 서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활동이며 어린이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2022년 어린이날제정 100주년, 2023 어린이 해방 선언 100년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로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계하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은 장기적으로는 상시공연이 있는 상설공연장으로 정착되어 여름시즌 공연예술축제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겨울시즌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축제’를 정착시켜 가고자 합니다. 올해 실험적인 시도에도 자문위원(이은경, 우인기, 황승경)을 비롯한 참여예술단체와 개인 예술가, 봉사자들 모두의 노고가 축제의 첫 번째 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두 번째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를 준비합니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예술적 실천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글_김보영)

|"예술적 실천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

김보영(어린이극장 담당자) kby308@nowonarts.kr

“예술적 실천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동안 그 질문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세계’라는 단어를 ‘나 자신’이라고 바꾸었으면 조금 덜 복잡했을까? 2022 프랑스의 대학입시 바칼로레아의 철학문제로 출제된 질문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진정 ‘예술’에 진심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감나게 해 준다. 진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우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술은 ‘삶 본연’이기 때문이다. 나무, 공기, 산, 들, 바다와 같은 자연물처럼 날 것의 속성과는 다르지만 예술은 인간의 삶을 무대 위에 가공하여 투영 시킨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세계’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전에 ‘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야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리적으로 ‘세계’와 ‘나’는 견줄 것이 안되고 물상적으로도 세계라는 광활함과 나 자신이라는 단일함이 엄연히 구분된다. 그런데 나는 왜 질문을 ‘세계’가 아닌 ‘나’라는 존재로 바꾸어 먼저 답을 풀어보려 했던 것일까. 내 경험이 곧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을 내 몸이 인지하고, 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경험이. 내가 익힌 생활습관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내 감각이. 곧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낼 수 있는 근간이었다. 개인의 생활양식과 마음가짐, 태도가 결국 세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다 은자이 교수의 모범 답안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더 풀어보고 싶다.

- 예술은 생산 활동이 아닌, 창조 활동이다. 유용성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공작품과는 달리, 예술의 소명은 여기서 자연의 의미로 이해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 예술적 실천을 이끄는 힘은 기술적 효율성에 대한 추구가 아니다. 이 점은, 유용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동일시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예술적 실천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글_김보영)

- ‘세계’란 다른 아닌,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대해 품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총합이다. 이런 경험들은 제각기 주체와 현실간의 관계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 세계는 오히려 내 시선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예술적 실천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출처_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년 7월호.

공연장으로 돌아와 내 경험을 들추어 이야기를 풀어보자. 코로나19로 비대면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 된 작년, 노원어린이극장은 거리두기 좌석제를 철저히 지키며 대면 공연을 강행하였고 공연취소도 없었다. 코로나가 엄습했던 시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온라인공연)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이라 말하고 최악으로 읽혀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는 3일 동안 소수정원 관람으로 50명의 어린이·가족만 유료관객으로 기획했다. 다수가 복잡복잡 즐기는 축제의 현장을 과감히 탈피하고 소규모 축제 현장의 가능성을 실험해본 시도이기도 했다.

공연예술의 특성상 관객이 실감할 수 있는 감동은 현장에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와 시간, 거리감을 감축하는 면에서는 비대면 공연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면 공연을 강행해야 한다고 다짐을 한 내재적 이유를 면밀히 살펴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대에서 생성되는 풍부한 움직임, 감각적인 표현,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가 단순히 스크린으로 전달될 때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공연 현장에서 느끼는 시공간의 감각과 밀도감, 아티스트와 무대가 자아내는 아우라와 분위기는 온전히 나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여 읽혀내야 한다는 것이 내 경험이 말해주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현장의 무게와 분위기에 온전히 나를 싣고 그 울림에 파도 타 듯, 내 의지가 발동되었을 때 스며드는 감동과 전율의 경험이 이미 내 안에 각인이 된 것이다.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자료집

04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만든이 소개’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홍보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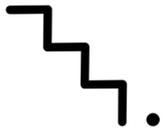
카프카 디자인 (youkmasal@daum.net)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홍보물 메인 디자인과 체험키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했습니다. 카프카디자인은 공감, 이해,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한 디자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기분좋은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공연 홍보물 작업을 할 때면 늘 설렙니다.

내가 어린이라면 어떤 홍보물을 마주하고 싶은지.....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나(어린이)를 마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영상·사진 촬영 및 기록>

디디다 (ddda0708@naver.com)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현장을 렌즈에 담고 스케치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디디다'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청년사회적기업이며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기록, 홍보물을 제작하는 광고제작사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정값으로 내제된 청년들이 복잡복잡, 아웅다웅 무언가를 기록하고, 새기고, 만듭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철학을 예술에 입힙니다. 예술의 순간을 기록하고,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합니다. 디디다가 말이죠.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디자인 아띠 그래픽 (atti4492@naver.com)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유리문 레터링 작업과 체험키트 스티커 제작 작업을 했습니다.

문화를 스케치 하는 아띠 그래픽은 노원구 문화예술명소를 다양하게 스케치 하였습니다.

예술과 함께 숨 쉬는 일상을 위한 모든 지역, 환경, 공간을 반깁니다.

기술이라는 수단으로 예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술이 가진 미학적, 예술성, 철학성이 모든이에게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예술을 위해 기술이 더 발달되고 다양해 지길 바랍니다.

예술의 잠재성을 발현하는데 기술이 전부가 될 수 없지만 수단이 된다면, 더없이 행복합니다.



<홍보물 인쇄 및 거치>

새롬애드 (parkjh161@hanmail.net)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홍보물 현수막과 라이트 배너 등을 제작·셋업 했어요. 노원구의 명물! 인기 인쇄소! 친절함 서비스! 신속함 기본값!.....이라고 많은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이 예술을 통해 감동을 전달한다면.

새롬애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노원어린이극장에게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만하면 새롬애드와 노원어린이극장의 우정은 말 다했죠?!!

우정과 사랑에는 늘 예술이 함께 합니다.

예술이 밥벌이 안된다고 누가 그러죠? (설부른 판단이면 죄송합니다.) 새롬애드는 예술있어 행복합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현장 조성>

램레이드 (ramraidart@gmail.com)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체험존과 공연현장 환경을 조성하고 미술디자인을 했어요.

램레이드는 차량을 타고 건물 앞 창문으로 돌진하여 내용물을 훔치는 행위를 뜻하며, 쇼윈도 (스크린)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정도로 매력적인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매력적인 단체이죠? ^^ (웃음)

세명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덕션입니다. 램레이드만의 색을 담아 뮤직비디오, 독립영화, CF, 웹드라마, 바이컬 필름, 무대미술 등 버라이어티한 범주의 미술 작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순진무구하지만 그래서 더욱 냉소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가 그간 진행해 온 다른 프로젝트 보다 더욱 색달랐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솔직함을 동경해온 제 마음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의 어릴 때 모습이 스멀스멀 떠오르기도 하며 예술극장에서 어떤 공연을 보았는지? 기억에 남는 공연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켜켜이 책장을 넘기듯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났습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물품렌탈>

라임렌탈 (<http://lime-rental.co.kr/>)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실외 무대 포토존 설치 및 관객존 현수막, 의자를 제공 하였습니다.

라임렌탈은 문화예술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안전하게! 세련되게! 감각적으로!! 담당자님이 원하는 형태와 구색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현장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삶이 된다면~

그 공간에 라임렌탈이 함께 한다면~ 룰루랄라~~~~ 램람람 ^^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봉사단>

강물 최상옥

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의무감으로 공연장엘 갔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난 할머니가 되었다.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재밌겠다 싶어서 신청했다. 첫 날은 호기심에 갔다. 둘째 날은 궁금해서 갔다. 셋째 날은 공연 보러 오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갔다. 넷째 날 아침, 참 허전했다. 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공연은 끝났다. 내년에도 하려나?



<봉사단>

덩이덩이 김숙희

옹기종이 모여 앉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아이들 모습이 참으로 예뻐니다. 캐릭터들에 집중하고,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덩달아 같이 긴장하며 마음 졸여던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와 같이 하는 시간이 참 고맙고 아름다웠어요~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봉사단>

수노 오순호

아이를 기르느라 잠시 잊었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접체험도 하지만 어린이극은 저를 다시 동심의 세계로 이끌기도 하고 지친 삶에 힐링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감사하게도 노원어린이극장 축제에 봉사단으로 참여하면서 쉽사리 다가가기 힘들었던 다양한 연극들을 접할때는 마냥 행복함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아이들의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컵인형만들기, 어린이극장의 방문객들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하고 지켜보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봉사단>

유숙영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공연예술놀이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공연을 보고 체험을 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그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공연도 보고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아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날 행사를 참여해서 즐거웠습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봉사단〉

봉사단 호호아줌마 이현주

〈와따가따 가족극장〉은 공연 이름부터 참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일 다양한 공연들로 꽉꽉 채워지고 모두 관람과 선택관람이라는 형식도 이채롭고 신기 했습니다. 11시부터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부스를 즐기고 실내의 공연장을 오고가고 공연장과 로비를 넘나드는 〈와따가따 가족극장〉은 진정한 어린이 공연 축제였습니다. 저는 입장 안내와 체험을 도와주며 이를 동안 행사에 참여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공연에 푹 빠져있는 예쁜 아이들의 모습과 공연의 배우들도 각기 다른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애절어렸습니다. 이를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정도로 공연자, 스태프, 관객 모두 행복했던 한 여름밤의 달콤한 꿈과 같은 행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현장 (공연) 매니저〉

김보경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공연단체 및 출연진들의 매니저역할을 했습니다.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육아를 병행하며 공동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현장에 기웃기웃 하다 극단 즐거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극단일을 도우며 노원어린이극장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보며 저의 어릴때를 가끔 상상했습니다. 상상속에는 우리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죠. 나의 어릴적. 그리고 지금 나의아이.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만든이 소개



〈현장 (체험) 매니저〉

오채원

공연을 기획하는 오채원입니다,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체험존 기획 및 운영을 진행 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밴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20분을 걸어가면, 노원구민의전당이 있고, 15분을 걸어가면 노원어린이극장이 있습니다. 노원 구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근사한 무대가 집 근처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2023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세요! 우리 밴드도 언젠가는 노원에서 공연할 수 있겠지요?



〈자료집 디자인 및 편집〉

Min Design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의 자료집 디자인과 편집을 진행했어요. 알찬구성, 멋진공연, 다음 해가 기대되는 기획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행복한 공연을 자료집으로 만들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자료집

04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현장 스케치’



노원어린이극장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파가파 가족극장 공연예술 놀이터 현장 스케치



와다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2022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기획 및 제작 노원어린이극장
주소 01752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2 노원KT B1 노원어린이극장
홈페이지 www.nowonarts.kr
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노원구청

총괄 원응호
예술감독 김병호
기획·운영 김성곤, 김보영

진행협력 업체협력_ 램레이드, 새롬애드, 디자인 아띠 그래픽, 라임렌탈
공연팀 운영매니저_ 김보경
체험 운영매니저_ 오채원
봉사단_ 김숙희, 오순호, 유숙영, 이현주, 최상옥

촬영 디디다
홍보물 디자인 카프카
자료집 디자인 최민영



노원어린이극장 어린이·가족 공연예술축제 1th
와따가따 가족극장 공연예술놀이터

결과 자료집 2022